

전국 156개 시군농기센터 소장 협의회 개최

농진청, 기상재해·병해충 대응·가루쌀 생산단지 지원·농업인 안전 등 논의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과수,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농진청간 협력을 위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5일부터 26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약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영농상황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관찰(예찰)·방제 강화 △이상기상·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사전 대응 △가루쌀 생산단지 재배지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는 영농 추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하향식 기술 보급 체계에 대학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다대다(多對多) 방식'의 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체계 개선 방안'도 공유한다.

이윤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

스티스, ASTI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 추진 계획, 국내 육성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기술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농업정책 확산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근로자 중심의 특화 건강증진활동 발굴을 위해 기관 최고 경영자, 업무 담당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군산시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건강 지키기 나선다

새만금개발공사, 민·관 합동 건강일터 사업 추진 협약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근로자 중심의 특화 건강증진활동 발굴을 위해 기관 최고경영자, 업무 담당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군산시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전문 건강상담, 교육을 군산시 보건소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공사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을 통해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영방침인 산업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평소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3일 전북본부 2층에서 도내 농업 면세유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관리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김제 검산 예다음, 오늘 '그랜드 오픈' 김제 최고 입지! 최대 대단지!

30년 건설명가 (주)영무건설의 계열사인 와이엠펙스테이는 김제가 기다려온 대단지 랜드마크 '김제 검산 예다음' 주택전시관을 25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김제 검산 예다음'은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전용면적 84㎡·A·B 434세대, 96㎡·A·B 66세대, 106㎡·A·B 148세대 총 648세대로 구성된다.

전 세대 4Bay 혁신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김제 최초 테라스(일부세대) 제공,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등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해 실사용 면적이 넓은 중대형 아파트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휘트니스(G·X룸), 최신식 프렌즈스크린 골프룸, 실내 골프연습장, 대형 키즈존(놀이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북카페 등 다양한 명품 커뮤니티 시설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을 선사한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 주차장을 확보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췄다.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에는 다양한



영무건설 '김제 검산 예다음' 투시도.

전용면적 84㎡·A·B, 96㎡·A·B, 106㎡·A·B 등 총 648세대 전 세대 4Bay 혁신 설계로 채광·통풍 우수, 공간활용도 극대화 홈플러스김제점·병의원 등 근거리 주거 편의성도 뛰어나

조경시설 및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갖춰 아이들도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입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으로는 홈플러스 김제점, 스타벅스, 김산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은행 및 병의원 등이 근거리에서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한 요촌어린이공원, 김제시민운동장, 수원지 등 다수의 녹지공간이 인접해 도심에서도 산책, 휴식 등의 쾌적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김제동초, 검산초, 김제중, 금성중, 김제중앙중, 김제여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김산동 학원가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주목할 만하다. 공주팔위로, 풍요로, KTX김제역,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어 김제 시내·외 전국으로 이동이 용이한 쾌속교통망을 갖췄다. 향후 새만금-전주고속도로(2025년 12월)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익산, 전주의 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고급리 기초와 분양가 상승 등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입지 여건과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들은 시장 흐름에 관계없이 훈풍을 맞고 있다"며 "김제 검산 예다음은 최적의 입지와 뛰어난 상품성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두루 갖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환경청, 온국민이 누리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고창 운곡습지보호지역·정읍 솔티숲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온국민이 우수한 생태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5~11월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전북의 습지와 지질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5~8월에는 복지시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의 자연환경을 직접 느끼고 인근마을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체험학습

을 진행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2회 진행한다. 6~11월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개인 및 5인 이하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국민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 체험 프로그램과 솔티숲 해설을 포함한 1박 2일 생태관광이 2회, 군산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의 지질해설 프로그램을 포함한 하루코스 생태관광이 2회 진

행되며 모집인원은 매회 15명씩이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일반국민에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운영하고 있다. 해설사는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3명,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2명으로 운곡습지 탐방안내소와 월영습지 탐방안내소에서 안내 및 해설을 요청하면 된다.

전국환 자연환경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온국민이 생태우수지역의 자원을 누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전 군산지사, 산돌학교에 장학금 전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는 24일 군산 산돌학교를 방문해 전력사업 이해도 제고 소통간담회를 시행하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촉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청에 따르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입주가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준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회

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상업공회소는 24일 전주페이퍼를 방문해 전주상의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상의, 전주산단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4일 전주페이퍼를 방문해 전주상의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상업단지 기업들의 경영으로 수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환경관련 민원해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태 회장은 "전주산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 등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서 리얼스 마켓

롯데백화점은 '자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24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리얼스 마켓'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리얼스 마켓은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을 찾아 플로깅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친환경 행사로,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백화점 측은 전주한옥마을 마루달 야외마당에서 리얼스 마켓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쓰레기를 주워 온 시민에게 천연 수세미, 실리온 지퍼백 등 다양한 제조 웨어스트 굿즈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뉴시스

전북농협, 면세유류 관리농협 업무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3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업 면세유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관리 업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면세유류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인 지원활동 강화 및 면세유 부정유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면세유 사후관리,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품질관리, 농협 에너지사업부의 면세유 공급실무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해 전북농협은 10만7,161

리(1,147억원)의 면세유류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24년에도 전북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유 담당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면세유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면세유 관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홍보를 통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단 노력"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조합원, 그리고 농업인에게 더 친절한 전북농협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4월 도내 소비자심리지수 94.7

한은 전북본부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전국지수에 못미쳐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94.7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으나 전국지수 100.7에는 미치지 못했다.

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CSD)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1)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주요 지수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

(85→87), 생활형편전망(90→91), 향후경기전망(74→75)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반면에 가계수입전망(95→95), 소비지출전망(103→103)은 전월과 동일, 현재경기판단(65→63)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의류비, 여행비는 상승한 반면 내구재, 의료보건비는 하락했다.

또 여타 지수에서는 금리수준전망(96→97), 주택가격전망(100→102)은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가계부채전망(102→101)은 전월보다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8일까지 전북 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79가구가 응답했다.

/뉴시스